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가운데서 움직이신 것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사람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에 관한 내재적인 신성한 계시

성경: 욥 10:13, 42:1-6, 엡 3:9, 요 1:1, 14, 마 1:23, 고후 3:18, 4:16-17, 롬 8:29-30,
골 1:12, 15-19, 3:4상, 10-11, 행 26:16-18, 엡 3:16-19

- I.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가운데서 움직이신 것은 구약에서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가운데서 움직이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직접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위해 그분의 새 창조물 안에서의 그분의 직접적인 움직임을 준비하기 위한 그분의 옛 창조물 안에서의 간접적인 움직임이었다 — 고후 5:17, 갈 6:15.
- A.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사람은 (생명나무로 상징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살고 표현하며 대표해야 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귀한 재료들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배필로 건축되어야 했다 — 창 1:26-27, 2:9-12, 18-24.
- B. 타락한 사람으로서, 사람은 (피를 흘린 희생 제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희생 제물의 가죽옷으로 예표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아야 했다. 타락한 사람은 또한 여자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뱀’인 사탄의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출 받아야 했다 — 창 3:8-9, 15, 21, 히 2:14.
- C. 하나님은 번제물 안에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셨다. 번제물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만족을 위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향기가 되었다 — 창 4:4, 8:20-22, 레 1:9, 사 42:1, 마 3:17, 17:5, 12:18, 요 5:30, 6:38, 7:18, 8:29, 14:24, 비교 고후 2:15, 아 4:10-16.
- D.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 창 22:18, 갈 3:8, 14, 16-17.
- E.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해야 했고(창 12:1-4), 그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살아야 했으며(7절, 13:18, 22:13), 율법에 의해 폭로되어 자신이 죄악되고 율법을 지킬 역량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고(출 19:8, 21-20:21), 그리스도를 성막과 제사장과 제물들로 취하여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써,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 존재를 누려야 했다(출 25장-레 27장).
- F. 욥의 유목 생활 방식(욥 1:3)과 그가 자녀들을 위해 번제물을 바친 방식을 볼 때(5절), 욥과 그의 친구들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던 것 같다(창 22:13). 그 당시에는 율법을 포함한 모세오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다.
1. 분명 욥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구두로 어떤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조상들에게서 받은 것은 기껏해야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계시의 수준에만 도달할 수 있었다.
 2.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해 논쟁한 것에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물 안에서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 이상의 신성한 계시를 받았다는 암시를 찾아 볼 수 없다.

3. 욥과 그의 친구들은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영에 관한 무언가를 암시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신성한 계시의 초보 단계에 있었다.
4.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욥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 사실상 모르고 있다. 너는 내가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또한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상상조차 못한다. 욥아, 나는 너에게 내 자신을 주어 너의 누림이 되게 함으로 너를 나의 일부가 되게 하려고 한다. 나는 네가 너 자신의 순전함과 온전함과 올곧음을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나를 얻기를 원한다. 나의 의도는 내 자신을 네 안에 넣어 주고, 너에게 다름 아닌 내 자신을 주는 것이다.”
5. 따라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은 욥이 했던 것처럼, 온전함과 올곧음과 순전함과 같은 인간 미덕들로 자신을 건축할 필요가 없으며, 험뎁이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절기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시 42:1-5, 43:3-5).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되시어 그들이 도달하고 획득한 모든 것을 대치하실 수 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심지어 엘리후와 욥에게도 바로 이러한 답변이 주어져야 한다(욥 10:13, 비교 엡 3:9).
6.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데, 이것은 욥이 그의 인간 생활에서 부족했던 것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로 욥기는 사실상 완결된 결말이 없다. 그 결말은 마땅히 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얻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몫으로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계시를 오직 신약에서만 완전히 발견할 수 있다 — 욥 40:10-14, 42:1-6, 10:13, 비교 엡 3:9.

II.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은 신약에서의 일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신 것에서 시작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것이다 — 요 1:1, 14, 엡 3:16-19, 계 21:2, 9-10.

- A.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되신 하나님이시며, 그들과 함께 또한 그들을 위해 인간 생활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생명 주시는 영 곧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들의 구원과 생명과 모든 것이 되셨다.(이것은 마태복음부터 로마서까지에 계시되어 있다.)
 1.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 처녀 안에 잉태되시고 그녀에게서 태어나 사람이 되심으로, 신성을 인성 안으로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되게 하셔서 한 실체가 되게 하셨지만, 제삼의 실질이 되게 하지는 않으셨다 — 레 2:4-5, 요 1:1, 14, 마 1:20, 23, 담전 3:16.
 2.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생활을 사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예수님은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그분의 고난의 삶을 우리 앞에 하나의 본으로 두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아 따름으로써 그분의 삶을 본받을 수 있다. 이것은 그분과 그분의 삶을 다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은혜이신 그분을 누림으로써 그분의 재생산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한 누림의 결과로 내주하시는 영이신 주님께서 직접 그분의 생명의 모든 풍성을 가지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재생산하신다 — 엡 4:20-21, 벧전 2:21.
 3. 육체 되신 삼일 하나님이자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골 2:9)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어, 우리를 위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종결하시고 그분 안에서부터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다(눅 12:49-51, 요 12:24).

4.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모든 것을 산출하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인성을 신성 안으로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시고 조성하시기 위해서였다 — 행 2:23-24, 32, 13:33, 롬 1:3-4, 8:28-29, 요 20:22, 고전 15:45, 12:13.
 5.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승천을 이루셨고, 주님과 그리스도와 영도자와 구주가 되셨는데(행 2:36, 5:31), 이것은 그분 자신을 변식시키시고 그분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해서였다(행 1:8, 26:16-18).
 6.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에서 그분은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셨다. 따라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모두 그들의 것이 되었고, 그분의 체험은 그들의 역사가 되었다 — 롬 6:5-6, 엡 2:5-6, 영한 동변 찬송가 949장 4절(한국복음서원 찬송가 763장 4절).
- B.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로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함으로 생명을 분배하시는 영을 통해 그리스도의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고, 성도들과 함께 건축되어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인 새사람이 되어야 하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연합인 새 예루살렘으로, 곧 영원 안에서의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의 나타남으로 완결되어야 한다.(이것은 고린도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계시되어 있다.)
1.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씻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며,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으며, 그분을 우리의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게 하셨다 — 엡 1:7, 고전 6:11, 롬 3:22, 5:10, 고전 1:30.
 2.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벧전 1:3),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그분의 영광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신다(딤후 3:5, 롬 12:2, 엡 4:23, 고후 4:16, 3:18, 롬 8:28-30, 빌 3:21).
 3.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동안, 우리를 소모시키시고 그분의 죽음 안으로 넣으시어 그분의 고난의 교통에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가 참여한 그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우리가 부활하신 그분을 체험하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신 그분을 얻게 한다 — 고후 4:16-18, 10, 빌 3:10, 8, 엡 3:8.
 4.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안에 체현되시고(골 2:9), 아들 하나님은 영 하나님으로 실재화되시며, 영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러 오셔서 삼일 하나님의 실재가 되신다(요 14:16-20). 아버지와 주님과 그 영, 곧 삼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근원과 요소와 본질이 되셨다(엡 4:4-6).
 5. 삼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안에서 실재가 되시는 비밀에 관하여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 많았지만, 실재의 영께서 오셔서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요 16:12-15). 실재의 영은 주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것들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골 2:2하)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엡 3:4)에 관한 신성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했다(골 1:25-27).
 6.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할당해 주신 신성한 몫이시자 믿는 이들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그분의 유기적인 몸인 새사람의 모든 지체들이 되셨고, 새사람의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이인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 골 1:12, 15-19, 3:4상, 10-11, 고전 12:12-13.

7.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 자신과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킴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여 우리 자신이 직접 주님을 뵈 수 있으며,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해 그분을 뵈 수 있게 할 수 있다 — 고후 3:16-18.
8.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변화시키시는 일을 수행하실 것이며, 결국 그분의 변화시키시는 일을 통해 먼저는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이들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시고(계 2:7), 최종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성도들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시어,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시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단지 어떤 종류의 인간 미덕들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가장 충만한 정도까지 영원토록 나타내게 하실 것이다(계 21:1-22:5).